



31일까지 도내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3~31일 7박 9일 일정으로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교육훈련에는 학생선수 33명이 참여하며,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학생 선수들은 각국의 올림픽 관련 기관과 선진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프랑스 체육 영재 육성 기관에서의 훈련 체험, 올림픽 개최지 탐방 등 국제적인 스포츠 환경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 각국의 올림픽 관련 도시와 기관을 방문해 전주가 준비 중인 올림픽 유치 활동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전주의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는 올림픽 역사 탐방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을 병행해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구천동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 진행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3일 구천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학생 및 교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구천동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간편한 아침식사(우리쌀 밥버거)를 받은 5학년 학생은 "구천초등학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버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천동농협은 정기적인 의료지원, 반찬봉사, 직업교육 등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취약계층 농업인 자녀에게 꾸러미 전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3일 구천초등학교에서 취약계층 농업인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농산물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고품질 쌀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생각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구천동농협은 정기적인 의료지원, 반찬봉사, 직업교육 등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성곤 조합장은 "앞으로도 구천동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통해 따뜻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서, 지역경찰 대상 소집교육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23일 경찰서 3층 치즈마루에서 각 과장 및 지역경찰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역경찰 소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역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내 유기적인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경찰서 각 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현안과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찰서장도 교육에 나서 실질적 직무 조언과 조직 방향을 전달한 뒤,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생질환 예방을 위한 식사관리'를 주제로 한 건강관리 특강도 병행하며, 임실 경찰관들의 자기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임실=진종영 기자

간호대생들, 일본 정신보건 현장서 회복 중심 간호 체득

‘베델의 집’과 홋카이도 의료대학 찾아… 국제 감각·실천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이 회복 중심의 실천모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간호대학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글로벌 PBL 프로그램을 통해 8명의 학생이 일본의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돌봄의 선진사례로 평가받는 ‘베델의 집’과, 다학제 통합 교육체계를 갖춘 홋카이도 의료대학을 방문했다.

간호대 학생들은 실천 사례와 이론을 융합한 문제기반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을 통해 현장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베델의 집’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해 지역사회 속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체험했고, 현지 활동가들과 교류를 통해 정신건강 회복에서 ‘관계’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현지 그룹룸 투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학습을 진행했다. 이들과의 만남은 회복 중심 간호가 단지 병원 내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과 삶의 공간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일본 회복 중심 실천의 권위자인 무카이야치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일본 정신건강 간호의 전문성과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홋카이도 의료대학을 찾아 일본의 간호교육 체계를 직접 견학하고, 학술교류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정신건강 이슈로 떠오른 ‘히키코모리’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상륜 학생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정신건강 간호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회복의 중심에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또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실천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재활로봇 특화센터·대자인병원 재활센터, MOU 맺어

재활로봇 연구·기술교류 등 본격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재활로봇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손잡고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재활로봇 특화센터(센터장 재활의학과 김기욱 교수)와 대자인병원 재활센터(센터장 송광섭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의료 로봇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재활로봇 관련 연구 상호 교류 △전문기술 및 인프라 공유 △국내외 학술정보 교류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재활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재활로봇 연구 및 기술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본 사업에서 활동 중인 보행재활로봇 뿐 아니라 재활로봇 특화센터 내에 있는 여러 재활로봇들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임상 데이터 등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해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문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 간의 기술적 협력은 물론, 미래 재활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연구의 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정성 담긴 삼계탕 한그릇… 여름철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조성

전주시각장애인협회·어울림 봉사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 전주에서는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나눔이 펼쳐졌다.

전주시각장애인협회(회장 노창욱)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 소속의 어울림 봉사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주시내 시각장애인 200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해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도 함께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하는 시간이었다.

시각장애인 직원들과 어울림봉사회 회원 30여 명은 이틀간 야채를 다듬고, 육수를 우리고, 직접 포장한 삼계탕을 각 가정에 정성스럽게 배달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이들의 손끝에는 ‘이웃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금산의용소방대, 여름철 수난사고 안전지킴이 역할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 금산의용소방대가 지난 22일부터 8월 말까지 금산현 상류 지역 일대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사고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노창욱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삼계탕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산현 일대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금산의용소방대가 금산현 일대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 후 입수 금지 △수심 확인 후 입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등 안전수칙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병춘 총장, 전국 고대 체육대회 출전 학생 격려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전국교육대학교 배구대회 및 농구대회에 출전하는 대표 학생들을 만나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전국 교육대학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본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다.

23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7~18일 열린 전국 교육대학교 배구대회에 참가했으며, 오는 26~27일 열리는 농구대회에도 출전한다. 전국 고대 체육대회는 교원양성대학 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체육 행사로, 교대 학생들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학업과 더불어 체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그동안의 준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농협, 2025년 다문화여성대학 현장체험 성료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1일 다문화여성대학에 참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전남 여수로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김제농협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여수엑스포에서 해양문화와 다양한 과학기술을 흥미롭게 경험했고, 여수의 명물인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겼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한 이 여행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정용 조합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 실천 위한 협의의 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수경)은 지난 22일, 고창교육지원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추진 협의회 '맑은고창교육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맑은고창교육추진단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가능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5년도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평가 방법 및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년농업인 프리미엄 샐러드 라이브커머스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은 23일 공영홈쇼핑의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리방'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스마트팜 프리미엄 샐러드를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공영홈쇼핑의 전국적 플랫폼을 활용해 '전북 청년농업인의 판로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김제농협 '유리피안 샐러드 1kg 6종 꾸러미'는 시중가보다 최대 46%까지 할인된 7,920원이며 무료 배송으로 진행했다.

동김제농협 샐러드는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해 신선하고 안전한 유리피안 프리미엄 샐러드를 생산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 샐러드는 유럽형 상추, 루콜라 등 다양한 프리미엄 채소로 구성돼 다른 일반 샐러드와 차별화되며, 농장에서 주문 즉시 수확해 신선도가 뛰어나다.

한편, 전북농협은 동김제농협과 함께 청년농업인 샐러드 판매를 위해 다양한 판촉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오상근 기자